

# 민중화가들 ‘10·26 탕탕탕’ 역사의 기억 화폭에



전정호 작 ‘독립유공자의 명패’

올해 ‘제6회 10·26 탕탕전’ 정식으로 내일 상기

광주전 30일까지 오븐마루치킨 27번가 갤러리

의향 장흥전 22일~11월 11일 이로우미갤러리

47년 전 10월 김재규의 총탄이 그를 관통할 때 한국의 오랜 독재는 끝났다. 어쨌든 그가 경제근대화에 기여했다는 측면에서 그의 파오를 덮자는 일부 사람들도 있지만 독재를 통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말살하는데 일조를 한 장본인인 것은 사실로 변치 않는다. 얼마나 오랜 독재에 지쳤으면 바로 밑 부하의 총탄이 날아들었을까. 그럼에도 그를 영웅시하는 세력이 많다. 아무리 현실에서 영웅시하려 해도 역사의 심판은 달라지지 않을 듯하다. 18년간의 장기집권은 긍정화될 수 없다. 한국 현대 민주주의 역사에서 오욕인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10·26의 역사적 의미를 아로새겨온 ‘10·26 탕탕전’이 10·26탕탕단 주도로 올해 광주와 장흥에서 민중화가들의 대거 참여 속에 각각 진행된다. 이 전시는 특정단체 주관이 아니라, 해마다 전시 석달 전에 모여 준비해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탕탕전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일제 청산의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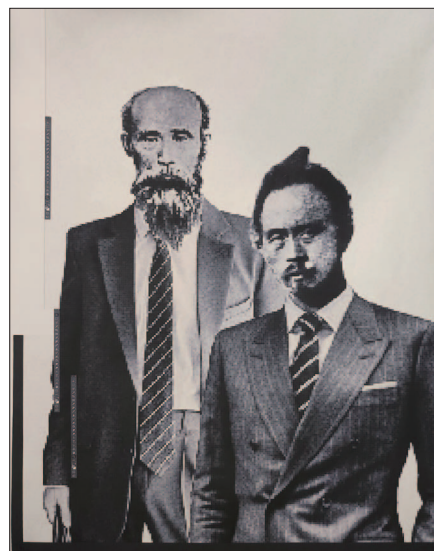
사와 승고한 기억들에 대해 시대를 증언하는 민중미술 작가들이 화폭에 담아 선보이는 자리다.

웹포스터 인물은 ‘이재명 의사 분장놀이’로 3년 동안 참여했던 이진호 청년의 모습으로, ‘탕탕전 기념행사’ 유튜브영상을 찾아보면 분장놀이경연대회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진은 ‘5·27세백광장’ 등 광주 곳곳 뜻있는 모임 구석구석을 찾아 기록하는 윤재경 사진가가 지난해 기념 행사장에서 순간포착 촬영한 사진이다.

해마다 연대단체와 작가와 시민들이 참여주체가 돼 홍보, 이바지음식과 기념상품 후원, 분장놀이와 모금 등에 참여하면서 함께 꾸려가고 있다.

광주 전시에는 노주일 조현 류기정 전혜옥 전정호 이사범 박건 이인철 박금만 위종만 문서현 강용 윤재경 이진호씨 등이 참여한다.

장흥 전시에는 김나영 김선도 김윤숙 김화순 노주일 류기정 박금만 박성완 박홍규



이인철 작 ‘해월과 전봉준’

위종만 이상호 이하 이인철 전정호 전혜옥 조연희씨 등이 출품한다.

출품작들 중 박건 작가의 작품 ‘가다밤-분선화’는 쌀 10%, 콩 40%, 조 50%로 이뤄진 일제 강점기 형무소 공방인 가다밤을 통해 일제식민치하 민족의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독립운동가들에게 200g을 배식하는 등 밥물로 짝이 9등급으로 나눠 차등 배식했다는 역사의 비통함이 서려 있다.

또 조현 작가의 ‘거북선과 안중근’은 임진왜란의 원흉 토요토미 히데요시와 일제 강점기의 수괴 이토 히로부미가 거북선과 안중근에 의해 몰락한다는 스토리를 담고

있다.

이나경 전시위원은 격문을 통해 이번 전시가 지나간 과거가 아닌, 오늘의 왜곡을 바로잡고 정의로운 내일로 나아가기 위한 뜨거운 증언이라는 시각이다. 이 전시위원은 “명량의 바다에서 하얼빈으로, 명동성당의 길목에서 독재의 심장이 뚫리던 그날까지? ‘탕탕-’ 시대를 관통하며 울린 소리는 친일 부역과 불의의 사슬을 끊어내겠다는 민중의 단단한 서약이었다”면서 “나라를 품은 그들의 삶은 산처럼 무거웠지만, 조국의 내일을 위해 바친 목숨은 깃털처럼 가벼웠다”고 전했다.

노주일 추진단장은 안내문을 통해 “전시는 이재명 의사가 의거를 눈앞에 둔 상황과 심정, 그 뜻을 잊지 않고 실천하는 미술인들의 작품, 그렇게 이어진 현재 시민들의 희망을 묘사하고 있다”면서 “올해 전시 참여작가들은 여수, 장흥, 광주, 서울, 화순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전은 지난 14일 개막, 오는 30일까지 동구 대의동 81-1번지 오븐마루치킨 27번가 갤러리에서, 의향 장흥전은 22일부터 오는 11월 11일까지 장흥을 동교로 이로우미갤러리에서 각각 열린다. 기념행사는 26일 오후 6시 30분 오븐마루치킨 27번가 갤러리에서 백구롭게 사회로 이뤄진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30일까지 동구 대의동 81-1번지 오븐마루치킨 27번가 갤러리에서 열린 광주전 전경.

## ‘제16회 광주비엔날레’ 관람객 20만 돌파

파빌리온 프로젝트 수준 격상 평 ‘도슨트Q’ 등 호응

초판 파빌리온 프로젝트의 대만관 명칭 논란으로 흥역을 치렀던 ‘제16회 광주비엔날레’가 누적 관람객 20만을 돌파했다.

19일 (제)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윤범모)에 따르면 ‘너는 네 삶을 바꿔야 한다’ (You Must Change Your Life)라는 주제로 지난 9월 5일 개막, 오는 11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제16회 광주비엔날레’가 개막 41일차인 15일 기준 관람객 20만 7197명이 전시장을 찾아 작품관람을 즐겼다.

이번 광주비엔날레는 개막 이후 국내외 관람객들의 꾸준한 관심과 발길 속에 순항하고 있으며 지난 한글날 연휴 삼일간에도 2만여명이 방문해 9월 7465명, 10일 7221명, 11일 5137명을 기록했다.

특히 관람객들이 전시장에 오랜 시간 머물며 작품을 천천히 살펴보는 모습이 가능해진 것이 우선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15회 전시 때보다 30여 작품이 줄어들어 그만큼 빽빽하게 작품을 배치하던 기존 관례와는 달리 여유롭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는 반

응이다. 아울러 현대미술의 다양한 실험으로 관람객들이 굉장히 고전하던 과거의 전시와 달리, 이번에는 큰 미술관 전시처럼 큐레이팅이 됐다는 반응이고, 익숙한 전시수준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퍼지면서 오히려 전시가 재미있다, 불만하다는 등 반응이 전해지고 있다.

여기다 스마트폰으로 작품을 촬영하면 인공지능(AI)이 작품 정보를 설명해 주는 AI 도슨트 서비스 ‘도슨트Q’도 관람객들에게 편리한 안거주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도슨트Q는 전시장 입구에 마련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이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예약 없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할 뿐 아니라 다국어 지원은 물론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설명도 제공해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유용하다는 반응이 뒤를 잇고 있다.

이밖에 27곳의 파빌리온 프로젝트의 작품 수준이 본전시 못지않다는 평이 뒤따르고 있다. 오히려 국가관이 본전시같다는 소리까지 들려올 정도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너는 네 삶을 바꿔야 한다’는 주제로 지난 9월 5일 개막, 오는 11월 15일까지 열릴 ‘제16회 광주비엔날레’가 누적 관람객 20만을 돌파했다. 사진은 제1전시장에서 도슨트로부터 로셀라 비스코티의 작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는 관람객들.

## 평범한 시민들 삶에 깊이 박힌 오월의 기억



극단 토박이 ‘오월휴먼시리즈’  
23~24일 민들레소극장 무대  
창작연극 ‘트리거’...5월 새겨  
실제 시민군 3명 이야기 조명



1980년 5월, 평범한 일상을 살던 광주 시민들은 총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항쟁이 끝난 뒤에도 그날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다. 누군가에게는 지켜야 할 역사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벗어나고 싶은 상처로 남았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했던 이들의 삶을 통해 역사적 진실과 기억 및 상처를 보듬는 연극이 무대에 오른다.

극단 토박이(대표 임혜정)는 오는 23일 오후 7시 30분과 24일 오후 3시 광주 동구 민들레소극장에서 오월휴먼시리즈 세 번째 연극 ‘트리거’(Trigger)를 선보인다.

오월휴먼시리즈는 1980년 5월을 살아낸 개개인의 삶에 주목하는 극단 토박

이의 창작 공연이다. 그동안 오월극이 민주주의와 공동체, 주먹밥 정신 등 5·18의 역사적 의미와 집단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펼쳐졌다면, 이번 시리즈는 그 역사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을 들여다보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극단 토박이는 오월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개개인의 삶이 충분히 조명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리즈를 시작했다. 앞선 작품들이 박용준, 박관현·신영일 등 특정 인물의 삶을 다뤘다면, 세 번째 작품에서는 ‘시민군’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되는 평범한 광주 시민들을 무대의 중심에 세웠다.

‘트리거’는 1980년 5월 시민군으로 활동했던 박주삼, 정윤식, 윤해님의 이야기를 엮어 창작했다. 처음부터 시민군이

없던 사람은 없었다. 군부독재의 폭력에 맞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항쟁에 참여하면서 평범한 이웃들이 시민군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과정, 그리고 항쟁 이후에 이어진 고통과 상처를 담았다.

특히 5월의 열흘이 끝난 뒤에도 이들은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고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는가 하면,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함과 따가운 시선 속에서 자신의 경험을 감춰야 했다. 작품은 항쟁 당시의 용기뿐 아니라 이후 오랜 세월 감내해야 했던 삶의 무게를 조명한다.

이야기는 사람들의 기억을 기록하고 삭제하거나 보존하는 가상의 공간 ‘메모리 아카이브 센터’에서 펼쳐진다. 어느 날 ‘기억 26-0518’ 주문자의 기억에

흔란이 발생하면서 센터 직원들은 해당 기억의 주인공을 소환한다.

센터에 나타난 인물은 1980년 5월 시민군으로 참여했던 엄마 이혜남과 딸 정달님이다. 오월의 상처와 미안함을 안고 살아온 엄마는 때로 혼령을 보고 그들과 대화를 나눈다. 엄마의 불안한 삶을 지켜보며 두려움과 고통을 겪어온 딸은 그 기억을 지우려 한다.

기억을 간직하려는 엄마와 지우려는 딸의 갈등은 개인과 가족의 아픔을 넘어 우리 사회가 오월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이어가야 하는지 질문을 던진다.

극작과 연출은 박정운씨가 맡고, 임혜정·박정운·김정훈·고영옥·정진주·윤재원·최혜민씨가 무대를 채운다. 공연시간은 60분이다.

임혜정 대표는 “5·18의 역사적 의미와 공동체 정신을 다루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역사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삶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었다”며 “평범한 광주 시민들이 시민군이 될 수밖에 없었던 과정과 항쟁 이후에도 끝나지 않았던 아픔을 이야기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5월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달라지지 않은 시선이 여전히 존재하고, 아직 온전히 밝혀지지 않은 진실도 있다”며 “이번 작품을 통해 우리가 어떤 기억을 간직하고 이어가야 하는지 함께 생각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극단 토박이는 1983년 창단 이후 광주를 기반으로 지역의 역사와 시민들의 삶을 무대에 담은 창작극 전문 공연단체다. ‘금희의 오월’, ‘모란꽃’, ‘오! 금남시장’, ‘광천동 청년 윤준씨’ 등 오월의 기억을 다룬 작품을 꾸준히 선보여왔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사전예약이 필요하다. 문의 062-222-6280.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